

30년간 동물제(축훈제)를 통해 동물의 영혼을 달래다

- AI, 구제역으로 희생된 가축들의 영혼달래 -



▲ 충남대학교 동물자원생명과학과는 금년부터 축훈제를 ‘동물제’로 이름을 바꿔 30여년간 희생된 동물들의 영혼을 달래오는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 김민규 학과장

충남대학교 동물자원생명과학과는 1952년 5월 축산전공을 신설한 이후 61년의 전통을 자랑하면서 축산현장에 일꾼들을 배출해 왔다. 축산과로 이어오던 것이 2005년 이후 동물자원생명과학과로 이름이 바뀌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축산전공과 냉동전공을 하나로 묶어 새로운 변신을 꾀하고 있다. 최근에는 학교에서 선정하는 학문분야 평가 대상은 물론 학과 경쟁력 강화사업에 선정되는 등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동물자원생명과학과는 김민규(동물번식생리학) 학과장을 중심으로 이수기(반추영양, 초지), 진동일(동물분자생물학),

이준현(동물분자유전학), 송민호(단위동물영양학), 허정민(가축사양 및 관리), 정사무엘(축산가공학) 교수 등 탄탄한 실력을 겸비하여 후학양성에 힘쓰고 있다.

충남대학교 동물자원생명과학과는 동물 관련산업과 학문의 영역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수용하여 동물자원과 생명과학분야의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나아가서 well-being과 인류복지를 수행시킬 유능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본 학과의 교육목표로 삼고 있다.

1985년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 어귀에 축혼비가 세워진 이후 매년 축혼제가 진행되었다. 금년에는 ‘동물제’로 이름을 바꾸어 체육행사와 함께 축제로 승화시키는 행사가 지난 17일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진행되었다. 이름을 동물제로 바꾸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축혼제가 제의 성격이 강해 이를 유화시키고 재학생은 물론 선후배 동문들이 함께 어울려 하나의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학교측은 말한다. 희생된 가축들의 영혼을 기리기 위해 행해지는 동물제는 국립축산과학원 등 정부기관이나 민간에서 개최되곤 한다. 또한 각 대학마다 축혼제가 행해지고 있지만 30년동안 매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는 곳은 많지가 않다.

이번 동물제에는 재학생은 물론 사회 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문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그 의미를 더해주었다. 이는 총동문회(회장 이영규, 도드람양돈조합장)에서 학교측에 제안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동물제는 풍물놀이쾌를 필두로 축혼비까지 행진을 한 후 재래의식에 맞추어 엄숙하게 진행되었다. 축문에서는 AI와 구제역으로 희생된 많은 가축들과 실험동물로 희생되고 있는 실험동물들까지 포함하여 영혼을 달래는 제를 올렸다.

김민규 학과장은 그 동안 축혼제(동물제)가 교사와 재학생들이 내부행사로 진행되어 왔으나 금년부터는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문들을 함께 참여시켜 보다 의미있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 금년 처음 시도하였으며, 앞으로는 보다 짜임새 있게 만들어 참여의 폭을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 계획을 밝혔다. 또한 내년에는 더 많은 동문들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동물제가 끝난 후 캠퍼스에서는 동문들과 재학생들이 함께 화합을 다지는 체육대회와 경품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동물제와 함께 새로운 캠퍼스의 트랜드를 만들어갔다. **[양계]**



▲ 동문 및 재학생들은 동물제와 함께 체육대회를 통해 화합을 다졌다.



▲ 풍물패를 앞세워 동물들의 영혼을 맞으러 축혼비로 이동하는 재학생 및 동문들